

☐ 설교 제목

“보지 못했지만 가장 잘 본 사람-방희철 목사님”

25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26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요11:25-26)

고린도후서 4:16-18

16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17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12:9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1. 시각장애와 파킨슨

사람은 눈으로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으로 보십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감각 중 하나가 시각입니다.

현대 뇌과학에 의하면 인간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약 80% 이상이 시각 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 눈으로 보아야 믿는다
-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 히브리서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보지 않고도 보는 능력**입니다.

육신의 눈이 닫히면 영혼의 눈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 요 9: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무슨 뜻일까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이 없어도 진리를 보는 사람

방 목사님은 후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방희철 목사님은

육신의 눈은 제한되어 있었지만 믿음의 눈은 누구보다 밝았던 분이었습니다.

고난은 영적 시력을 깊게 합니다

방희철 목사님은 시각장애뿐 아니라 **파킨슨병**이라는 또 다른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파킨슨병은 도파민 신경세포가 점점 줄어들면서

- 몸이 굳어지고
- 움직임이 느려지고
- 떨림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몸은 점점 자유를 잃어갑니다. 거기에 코로나와 의료사고까지 겹쳐 2년의 긴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 고린도후서 4:16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육체는 약해졌지만 영혼은 하나님께 더 가까워졌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늘을 더 깊이 보게 만드는 창문이 되기도 합니다.

2. 인간의 눈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눈

뇌과학적으로 보면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 중 많은 분들이 다른 감각이 훨씬 더 예민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감각이 약해지거나 사라질 때 뇌가 다른 감각을 강화하도록

신경 회로를 재배치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을 **교차-양식 감소성(cross-modal plasticity)**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각이 없으면 시각 피질(후두엽)이 놀지 않고 청각이나 촉각 처리에 사용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시각을 잃은 사람의 경우 시각피질이 소리나 촉각 자극에도 활성화됩니다. 또한 뇌 영상 연구에서는 점자를 읽을 때 시각 피질이 활성화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뇌의 보상 메커니즘**으로

- 1) 사용하지 않는 영역 발생하게 되고,
- 2) 다른 감각이 더 많이 사용되어
- 3) 뇌가 신경 연결을 재배치하여
- 4) 해당 감각 능력 향상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세상의 것들이 줄어들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 건강이 약해질 때
- 삶이 어려워질 때
- 고통이 찾아올 때

그때 사람은 비로소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리고 그때 **영적인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육체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 고린도후서 12:9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우리는 강할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 약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에 약함을 허락하십니다.

그 약함이

- 교만을 깨뜨리고
- 믿음을 자라게 하고
-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합니다.

3. 우리의 마지막 소망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 요한복음 11:25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기독교는 죽음을 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말합니다. **죽음은 통과입니다.**

잠시 헤어짐이 있지만 영원한 만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슬픔 속에서도 이 소망을 붙잡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 계 21:4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곳에는

- 시각장애도, 파킨슨도 없습니다
- 고통도, 슬픔도, 눈물도, 그리고 더 이상 죽음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얼굴을 밝히 보고 계실 방희철 목사님을 기대합니다.**

◇ 기도문

사랑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종 방희철 목사님을 기억하며
2주기 추모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주의 종으로 충성되게 사역하시던 목사님을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방희철 목사님은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삶보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는 삶을 살았습니다.
육체의 눈은 제한되어 있었지만 몸도 파킨슨으로 불편했지만
영혼의 눈은 하늘을 향해 열려 있었습니다.
섬김과 사랑의 삶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시고
그 믿음의 발자취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목사님께서서는 주님의 품 안에서 모든 고통과 눈물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남아 있는 가족들과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설 그 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에서 다시 만날 그 날을 바라보며
우리 모두에게는 위로와 소망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